

2016.1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6.11.29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민근, 정철상, 신종성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3	7	-	2	12	-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8	5	-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10, 11월
보도	“MBC 뉴스 이모저모” 단신뉴스 화면 전환 시 효과음 변경	단신뉴스 화면전환 시 효과음 변경함	11월
보도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보도 신속하게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후속 보도 (11/3, 11/15, 11/16, 11/28 등) 토론프로그램(11/13) 다룸	11월
교양	교양프로그램(아침이 좋다) 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 시간 강화	아침이 좋다 <뉴스&이슈>코너 방송시간량 10분에서 15분으로 강화	11월
기타	대전MBC 프로그램, 행사(로컬푸드 주말장터, 코이카박람회) 지역에 머물지 말고 글로벌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통해 프로그램과 행사 소개	10, 11월
기타	야외 행사(음악회, 쇼 등) 운영상 안전과 관련 질서유지 위해 안내 멘트, 질서요원 체계 갖추도록	대전국제와인페어(11/5-11/6) 진행시 질서 안내요원 배치, 안내멘트 진행	11월
보도	뉴스데스크 진행하는 여자 앵커 서서 진행할 때 부자연스러워	뉴스데스크 진행하는 여자 앵커 서서 진행할 때 자세 교정	11월
보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업체 발굴 보도 필요	박희원 라이온컴텍 대표(한빛대상 수상자) 등 꾸준히 소개	10월
보도	핵폐기물 보도 주의깊게 꾸준히 여론화 할 필요	사용후 핵연료 문제 집중적으로 뉴스데스크에서 다룸 (10/17, 10/20, 10/25, 11/3 등)	10, 11월
교양	로드 다크(테마기행 길) 해당 주인공 심층적으로 취재 필요	흔불 작가 최명희(11/10) 심층적 취재	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 ~ 2017. 5.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어느 날 tv 를 보다가 화자의 말과 자막의 글이 다르다는 것을 상당수의 시청자들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문점을 갖게 된다. 그리고 tv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 ‘다르다’ 와 ‘틀리다’ 를 습관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우선 사전적 의미부터 보면,</p> <p>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예: 사과와 배는 다르다(0) 사과와 배는 틀리다(X)). 틀리다 :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1+1은 3 이다 는 틀린 답니다.(0). 음식이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의 인터뷰를 보면, “이 집은 다른 집과 맛이 틀려요”라고 많이 말하는데, 자막은 “이 집은 다른 집과 맛이 달라요” 라고 적혀 나온다. 상당수 시청자들은 이 때 혼란을 느끼게 된다. 또 하나, 야채와 채소의 차이점. 분명 ‘야채’ 라고 말하고 있는데, tv 화면의 자막은 ‘채소’라고 나온다.</p> <p>국어사전에서 ‘야채’ - 들에서 자라는 나물. ‘채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채소-밭에서 기르는 농작물.</p> <p>일상에서는 채소보다 ‘야채’ 가 많이 쓰이는데, ‘야채’는 일본식 한자어다. (일본말인 야사이 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채소’라는 말을 쓰자고 한다.</p> <p>hope의 뜻을 가진 우리말은 ‘바라다’ 이다. ‘바래다’가 아니다. (색깔이 흐려지는 ‘바래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p> <p>‘바라다’의 명사형은 ‘바람’인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는 사람이 많은데, 바르게 쓰는 것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이다. ‘바람’ 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자막에는 ‘바람’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화자와 화면 표기상의 다름(?) 은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생방송도 아니고~. 이 차이점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은 방송사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시청자나 청취자에게</p>	<p>진행자, 작가들과 정기적 모임을 통해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은 모니터링 하면서 교정하고 있다.</p> <p>방송매체에서 틀린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다.</p>			

	어떤 방식으로든 제대로 알려야 한다 (김학선).			
<p>보도</p>	<p>진행형+진행형을 ‘이중 진행형’으로 얘기한다면, 방송언어에는 그것이 진행형이란 것을 의식하지 못한 탓인지 표현과 개념이 부합하지 않는 진행형의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면, “ ~ 가 보이고 있다”. “~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가 우려되고 있다”. “ ~가 예상되고 있다”. “ ~가 기대되고 있다” 등등. 뉴스 등에서 위와 같은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중 진행형의 잘못된 표현들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예들은, “~가 보인다”. “~할 것으로 전망 된다”. “~가 우려 된다”. ‘~가 예상된다’.”~가 기대 된다“. 로 올바르게 쓰여 져야 한다. 현재성을 강조하다보니 이런 ‘이중 진행형’이 나오나 보다. 동사의 어미에 진행의 의미가 들어 있으면 진행형을 쓸 수 없다. 진행형을 쓰게 되면 ‘이중의 진행형’이 되기 때문이다(김학선).</p>	<p>앞으로 기사 작성 시 유의하도록 모든 기자들과 공유하고, 데스크 시에도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겠다.</p>		
<p>교양</p>	<p>11월 3일 방송된 시사플러스에서는 ‘젊음과 전통시장의 만남!’ 과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전쟁 중’ 을 다루었다. ‘젊음과 전통시장의 만남’ 에서는 홍성전통시장에서 주말마다 청년과 주부를 위한 창업을 지원하고 아나바다와 초등학생 미술수업과 공연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이 참 즐겁다. 가보고 싶다. 시장이 참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과 어린아이가 있는 주부 등 젊은 시청자들에게 전통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대전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전쟁 중’ 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에 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워킹맘 육아대디’ 드라마와 악동유지선의 ‘일가양득’ 노래도 삽입하여 지루하지 않고 재</p>	<p>사람이 있어야 장이 선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73년의 전통을 간직한 홍성전통시장에 최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하다. 매주 토요일마다 홍성의 젊은 창업자 30여명이 홍성전통시장에 모여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들을 마련한 주말장터. 전통시장 상인들과 젊은 창업자들의 상생을 통해 새로운 전통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현장을 찾아갔다. “젊음과 전통시장의 조우! 홍성 주말장터”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쇠락하지 않고 생존하는 곳도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의 기준인 1.3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는</p>	<p>○</p>	

	<p>미있게 시청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운 점은 제목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전쟁 중' 인데 워킹맘 워킹대디의 일상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그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p> <p>예를 들면 워킹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하며 한 손에는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낼 준비를 동시에 하며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가정으로 다시 출근해서 육아와 가사일을 하며 그야말로 육아전쟁을 겪고 있는 고단한 일상을 워킹맘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인터뷰하는 모습도 있었으면 그야말로 전쟁이구나 라는 더 많은 공감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p> <p>또한 저출산문제의 핵심이 육아문제임을 말하면서 육아문제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게 하는 성모병원 직원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게 하는 기업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가족친화기업이면서 여성친화기업인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인터뷰 내용을 만들었으면 더 많은 기업들에게 홍보가 되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p> <p>그렇지만 저출산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날게 되고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내용이 유익했고 앞으로도 저출산문제에 대한 소재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주셨으면 한다(강은혜).</p>	<p>1.24명에 불과한 상황. 지속되는 경제 불황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p> <p>하지만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p> <p>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5%에 머물고 있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과거의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p> <p>더불어 법적으로 보장된 남성육아휴직도 공직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되고 있는 까닭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 할 수 있다.</p> <p>이에 <시사플러스>는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과 함께 워킹 맘 워킹 대디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없을지 그 대안도 모색해 보았다.</p> <p>여성친화적 기업의 양상을 다양하게 소개 했어야 하는데 제작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음 편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p>		
교양	<p>대전MBC 창사 특별기획 “White Gold, 400년의 여정” 총 3부작 중 2부작을 시청하였다. 일단 시청 소감을 말한다면 영상면에서는 아름다운 도자기의 문양을 현지의 생생한 영상과 함께 잘 담아내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게 하였고, 내용면에서는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함께 시청자가 실증없이 시청하면서 도자기 400년의 여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알차고 풍부하게 전개해 나갔다고 본다.</p> <p>우리는 흔히 도자기하면 ”그 옛날 우리나라가 중국과 더불어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에서 보듯 도자기 기술이 우수했고,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통해 우리나라 도공을 강제로 끌고 가 일본의 찬란한 도자기 문</p>	<p>MBC는 2016년 특별기획 <화이트골드, 400년의 여정> 3부작을 3주간에 걸쳐 방송했다.</p> <p><화이트골드, 400년의 여정>은 ‘도자기’를 둘러싼 동서양의 하이테크 전쟁을 다룬 이야기다.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에 이르기까지 도자기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주요국의 역사를 역추적하고, 생생한 현지 촬영을 통해 도자기의 현재와 가치를 담았다.</p> <p>중국 도자기의 발명은 유럽보다 1,500년이나 앞섰다. 도자기(차이나, china)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 인류 최초의 자기 제조 기술을 보유했던 중국. 중국 도자기의 최첨</p>		

	<p>화를 꽃 피우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p> <p>하지만 이번 창사 특별기획을 통해 “도자기라는 도기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일본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유럽에서 다시 한번 꽃 피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후 산업혁명과 대량생산, 혁신을 통해 도자 기술을 다시 발전시킨 곳이 유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시청자들 또한 이번 창사 특별기획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많을 것이다.</p> <p>그리고 유럽에서는 동양의 도자기 기술을, 모방을 통해 더 발전하고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지만 도자기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혁신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다. 어찌보면 근대에 들어 우리는 도자기를 식그릇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인식해 장인도 사라지고 혁신도 못 이룬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도 들었다.</p> <p>이번 창사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도자기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나아갈 길을 찾아주었다고 본다. 그리고 제3부 “전통, 혁신을 더한 이름”에서는 한국 도자기의 여정과 한국 도자기의 방향과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내용이 사뭇 궁금해진다(장백기).</p>	<p>제품이었던 청화자기는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탄생한 것이다. 페르시아에서 산화코발트를 수입하여 하이테크 상품을 만들어 냈고, 이후 중국은 유약 개발과 가마, 제작 분업화 등으로 독창적인 기술을 습득한 것이다.</p> <p>이러한 도자기에 대한 열망은 과학적 탐구를 토대로 한 유럽의 새로운 도자기 기술 개발에 불을 당겼고,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유럽은 도자기를 둘러싼 하이테크 기술 전쟁에 돌입했다. 유럽 도자기의 성지이며, 유럽 도자기 역사의 출발점인 ‘마이센’,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불리우는 ‘세브르’, 덴마크 왕실 도자기 ‘로열 코펜하겐’, 본 차이나로 세계 도자기를 선도했던 ‘웨지우드’ 등 세계를 휩쓴 유럽의 도자기 명가의 비밀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었다.</p> <p>이러한, 도자기를 둘러싼 하이테크 전쟁 속에 조선 도공의 숨결이 함께 묻어있다. 중국과 함께 동양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렸던 일본 도자기의 원류가 바로 조선도공 이삼평이다. 계룡산 도공 이삼평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조선의 선진 도자기 기술을 전수하고, 일본에서 도자기 시대를 연 인물로, 일본의 도조로 추앙받고 있다.</p> <p>이삼평에서 시작된 일본도자기는 그 원류였던 조선을 뛰어넘어, 세계 도자기 시장의 맹주로 군림했다. 조선은 이 하이테크 전쟁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혁신하지 못한 기술은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다.</p> <p>현대 한국의 도자기는 어떤 전략으로 하이테크 전쟁에 다시 뛰어들 수 있을까? 세계인들은 한국 도자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대전MBC 창사 52주년 특별기획 <화이트골드 400년의 여정>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혁신과 창조 의 정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p>	
교양	<p>대한민국 최초의 한글 디자이너인 이건만의 소개로 시작한 이번 방송(허창 토크 앤조이 11월 13일)은 한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우연한 기회로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날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희망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도전을 했다는 그 도전정신이 멋있었으며 패션잡화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니 그 의미가 더욱 빛난다고 느껴졌다.</p>	<p>국내 최초로 한글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온 이건만 대표.</p> <p>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한글 모노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패션잡화 제품들을 내놓으며 한글의 명품 브랜드화를 이끌어 왔다.</p> <p>그의 한글 디자인 제품들은 청와대 의전 상품으로 제공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아 왔다.</p>	

	<p>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넥타이를 직접 가지고 와 넥타이에 대한 일화와 함께 소개를 해주니 한글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글날을 맞아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2년 연속 한 달간 한글 버스를 디자인해 선보임으로써 한글의 홍보를 하는 것과 본인의 전공을 살려 우리말 홍보대사로 활동하셨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글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잘 다했지만 다양한 디자인들을 화면으로나마 소개를 해주었다면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성정모).</p>	<p>한류 열풍의 한가운데에서 그의 한글에 얽힌 남다른 철학과 열정을 프로그램에 담았다.</p> <p>시간상 전체 작품을 화면에 다 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색 있는 작품의 특징을 잘 잡아내 담도록 하겠다.</p>		
<p>편성</p>	<p>“White Gold, 400년의 여정” 총 3부작 중 2부작(11월 24일)을 시청하였다.</p> <p>일본 규슈 아리타에는 매년 5월 해마다 백만 명이 찾는 아리타 도자기 축제를 연다. 산골마을이 도자기로 유명해진 이유는 조선 도공인 이삼평이 1616년 자기 제작에 필요한 백토를 이즈미 산에서 발견했다. 조선 도공의 손끝에서 시작한 아리타 자기는 일본문화로 성장 발전해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도자기 전쟁이라 불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은 자기 기술을 열망해 조선 도공 이삼평을 끌고 갔다. 아리타 도자기 문화의 발전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주었다. 그렇지만 우리 조선 도공인 이삼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이고 자세하게 다뤘다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가카에문 이란 지금의 색채 도자기를 말하는 것인데 유백색의 자기 위에 좌우대칭의 여백을 살려 그리는 것이 특징이며 기본 5가지 색상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이다. 도자기 제작기술 모두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가카에몬에 대한 영상을 잘 담아 낸 것 같다. 370년의 세월이 흘러도 수공예를 고수 하고 있는데 도자기의 아름다움이 화면 밖으로까지 전달됐다.</p> <p>이외에도 중국과 영국의 자기문화들을 소개해줌으로써 제목에 걸맞은 세계의 장인들을 잘 알려준 것 같다.</p> <p>편성시간대를 목요일 밤 11시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타 채널(이른다면 JTBC 썰전)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대여서 시청률이 잘 나올까 염려가 된다 재방송이 필요하다(성정모).</p>	<p><화이트골드 400년의 여정>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의 도자기 역사를 보여준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시작된 도자기 문화는 우리나라의 자존심과도 같다.</p> <p>전 세계에 20여 점 존재하는 조선의 ‘달항아리’를 극찬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 왠지 모를 뿌듯함에 미소 짓게 되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p> <p>고려청자와 조선분청자 그리고 백자를 거쳐 발달해 온 우리 도자기는 극도의 순수함과 고요한 조화를 고루 갖추어 소박하지만 곳곳한 삶을 살았던 조상의 결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오랜 자기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자기 산업은 저조하기만 하다.</p> <p>도자기 시장의 60%가 수입도자기인데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유럽 도자와 저렴한 중국 도자 사이에서 우리 도자기의 나아갈 바는 고민이다.</p> <p>유럽의 다양한 도자기 회사와 예술가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p> <p>재방송 편성은 아직은 미정이다.</p> <p>그러나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주 시청시간대를 확보해서 편성을 할 계획이다.</p>		

교양	대전MBC 창사 특별기획 “White Gold, 400년의 여정”을 시청하였다. 제목을 White Gold 대신 도자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았을 듯싶다. 프로그램 기획의도는 알겠으나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자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타이틀로 접근한 것이 이해하기 좋았겠다(이상진).	제목 선정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높게 하기위해 제작진이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다.			
보도	대전MBC 뉴스데스크나 뉴스투데이를 보면 첫 화면에는 당일 방송 나갈 아이템을 축약한 헤드라인 뉴스를 내보낸다. 11월 말 뉴스투데이 헤드라인 뉴스 순서와 실제 뉴스 순서와는 다르게 처리가 되었다. 헤드라인 뉴스 순서와 실제 방송 뉴스 순서가 일치되길 바란다(이상진).	기사 편집의 방송 순서는 재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다. 뉴스 편집에 보다 유의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다.	○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 진행자(남녀 MC) 표정이 밝아 시청하기 좋다. 권흥순 기자의 내용 전달력이나 표현은 딱딱하지 않아 좋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점은 세트의 산만함이다. 세트의 배경 설치물이 너무 많다. 시청하기 혼란스럽다. 세트 구성을 깔끔하게 단정했으면 한다(박정훈).	보통 촌하게 프로그램 개편할 때 세트도 이 때 새옷을 입는다. 하지만 진행중에도 세트는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 고려해 보겠다.		○	
기타	대전MBC 주간사보인 <M-STORY>의 디자인이 세련되게 편집되어 보기 좋았다. 퇴직선배들이 기고한 글에서 회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대전MBC의 방송제작, 그리고 방송 이외의 면들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겠다(박정훈).	<M-STORY>지면 구성에 대해 편집위원들이 매주 논의를 한다.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인(시민)들도 <M-STORY>를 자주 본다. 대전MBC를 소개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면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보도	<p>몇해전 MBC “PD수첩”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을 심층취재, 기획취재를 하여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국민들은 MBC에 대해 신뢰를 하였다.</p> <p>현재 국내의 시국상황을 전달하는 방송사들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을 살펴보니 KBS는 “입더라도...” MBC는 “쫓아내자...” 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시국상황을 전달하는 기자의 마이크에는 MBC 로고가 없다. 대전MBC는 어떠한가?</p> <p>대전MBC의 시국 보도(촛불집회)는 면피용 보도이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다른 지역MBC는 촛불집회 당일 최소 2-4개 아이템을 방송하였고 대전 지역 지상파방송을 보더라도 여러 개의 아</p>	<p>현 시국 상황과 관련해 지역민과 시청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뉴스를 제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양한 시각과 여러 의견 등을 취합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거듭 유의하겠다.</p>		○	

	<p>이템뿐만 아니라 중계차를 현장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다.</p> <p>촛불집회와 관련 대전MBC 뉴스를 보면 촛불집회 당일 보도 달랑 1개, 마치 대전 시내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한 사건을 생각 없이 그냥 내보내는 듯하다.</p> <p>현 시국의 엄중함을 대전MBC는 제대로 보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이승선).</p>			
기타	<p>대전MBC 주간사보지인 “M-STORY” 에 연재물을 기획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한화이글스 관련 내용을 대전MBC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부터 한화이글스 뒷이야기를 연재하면 재미도 있을 것이다(김학선).</p>	<p>아직 특정 소재를 기획물로 연재는 않고 있지만 내부 편집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p>		
교양	<p>시사플러스는 시사저널리즘 프로그램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시사프로그램이 지역방송사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시사플러스에서 2개의 코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한 코너는 정보 프로그램에 적합한 성격의 것도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정보성 아이템은 정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정통 시사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한다(이승선).</p>	<p>시사플러스는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이다. 전체적으로 무게감 있게만 구성을 하면 시청자들이 부담을 갖고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코너로 구성을 하고 있다. 메인 코너는 정통 시사문제, 다른 1코너는 다소 덜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다.</p> <p>앞으로 이 문제를 제작진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p>	○	